

## [2019-3-17] 주일 말씀 녹취록

제목 :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말씀 : 강만석 목사님

본문 : 빌립보서 2:1-11

1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강만석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과 여름은 신분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름과 여러분 신분이 정말 여러분일까요? 제 모습과 모양이 정말 강만석이 맞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알아보는 강만석의 모습과 모양 있겠지만 그런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 모양과 제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저는 누구일까요? 과연 여러분은 누구실까요? 생각하는 머리일까요? 생각하는 머리는 과연 머리가 맞을까요? 그렇겠죠 뇌가 생각을 관장 한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과 생각하는 방식이 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분명 할 것입니다 삶과 철학과 사고방식은 매우 중요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사고 방식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도 하고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품위와 훌륭함이 그 철학과 사고방식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부와 자기가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남과 구별하고 차별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만큼 우리를 나타내고 대표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철학과 사고방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받는 연봉과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나를 대표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하는 명함을 돌릴 때 자신의 자리를 대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연락처를 알리려는 것보다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어느정도 사실입니다 그만한 위치와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대충 그가 어떤 삶을 살아온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끼치는 영향력으로 볼 때 자기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내 자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과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철학과 방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철학과 사고방식과 비슷하지만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의 삶을 가지고 또 평가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한다면 내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일까요?

젊어서는 저는 목사가 되려고 어떤 책을 많이 읽어야 목사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선배 목사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철학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철학책을 꽤나 많이 읽었습니다. 책도 참 많았습니다 이것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역사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참 좋다 해서 역사책을 또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미디어를 잘 할 수 있어야 복음 전하는데 큰 일을 할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철학쪽으로 철학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제법 열심히 읽었던 책들은 실천신학과 교회사 같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학교 성적이나 시험과 관계 없이 혼자 참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읽었던 책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저는 분별력과 판단력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연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되고 단련된 분별력이 얼마나 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 저는 사실 그 땀 몰랐었습니다 그것이 바둑의 수, 장기의 수와 같아서 남보다 몇 수를 더 보느냐 못 보느냐 수를 정확하게 읽느냐 못 읽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수준과 품질이 달라졌습니다 분별력은 오늘 저를 있게 한 일등공신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분별력은 일종의 삶의 철학과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정말 나 다운 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인간,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욕심 내어야 할 것은 마음이라는 생각을 자주, 깊게 하고 있습니다

매우 열정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볼 때 큰 성공을 이루신 것 같은 선배 목사님들 중에도 은퇴 하실 때 자리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평생의 수고와 공을 하나님한테 공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다 까먹고 추해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TV를 보는데 TV에서 각 교회마다 여러 한국의 큰 교회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많은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다 바로 그 욕심이 마음입니다 욕심이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탁월한 분별력과 사고방식이 그를 힘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였지만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돈 몇 푼에 그리고 자리 때문에 남을 실망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초라하게 하는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세습을 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들의 마음이 제게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제가 다스리지 못 하고 제어하지 못한다면 제 인생은 정말 아이들 말로 한 방에 흑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만도 마음입니다 교만은 사고 방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정말 추하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교만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을 잘 그리고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1970년 이전에는 아주 못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길에서 주워 먹고 남의 것을 훔쳐 먹어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원조 온 강냉이 가루도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외원조 받는 나라가 지금은 해외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해외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원조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기도 믿음 때문에 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한국 대통령이 해외원조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훌륭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을 주면서도 두 손으로 주라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구조와 원조를 베풀때 한 손으로 주지 말고 두 손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하게 드려야 하는 돈도 두 손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인데 두손이 아닌 한 손으로 마치 고맙게 생각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한 손으로 선심 쓰는 것 같이 주는 그 자세가 예수가 그리스도되신 비밀 선포 하는데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나 남에게 줄 때도 한 손이 아닌 두 손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유치원 있습니다 애프터스쿨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마음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비밀 날마다 선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고 베푸는 위치에 있는 복음이 마음속에 있는 의식적인 그리고 무의식적인 교만함이 일을 망치게 하는 것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겸손한 마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전략과 전술 그리고 풍부한 자금과 물자를 가지고 있다 해도 절대로 좋은 성공이라고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행동에서 말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현장 있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돈으로 하지 말고 전략으로도 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껏 목회를 하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성공은 다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는 생각과 행동이었습니다 참사랑교회가 시작되면서 저희들 교회들은 후대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려는 노력 게으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후대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일하다 보니깐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얻게 되니까 아이들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제 인지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은 제가 학부모에게 참사랑교회 만큼은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붙어만 계서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교인으로 인정하고 함께 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 이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부모가 유치원 아이를 졸업시키고 애프터스쿨 다니고 지금은 다 성장했지만 최근에 그 부모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잠깐 얘기 하는데 목사님 저희들도 아직까지 참사랑교회 교인이지요? 그 말이 그렇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축복 받는 은혜가 있었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일을 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의 마음은 힘이 있습니다. 생각도 중요하고 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물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마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에 직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아 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사들은 이미 참사랑교회가 복음 전하는지 잘 알고 있고 유치원에 매일 아침마다 예배볼 때 다 같이 예배를 보게 됩니다. 선생님들도 같이 예배를 봅니다. 복음을 매일 듣고 예배를 함께 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우리 못지 않게 복음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은 고용주의 우월적인 힘을 이용하여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싫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 꼭 우리 교회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당신 나가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면 당신이 그 교회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나가게 되면 전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에 붙여 주고 그 교회에서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말해 주고 그것만 계속 당신이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해드립니다.

여러분 내 것, 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이 멀어서 여기까지 못나오면 그 가까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직원들은 대부분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마음의 힘 있고 능력 있으면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있기에 그들도 우리 함께 일행들입니다.

저는 반 평생 예수 믿고 설교를 해 왔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얻은 축복이 참 많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많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생각으로 내가 이룰 수 없는 성공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뭘까요? 내 것만 욕심내지 말고 내 교회만 세우려고 욕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테니깐 너는 복음만 선포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순서를 바꾸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짓고 교육관을 짓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목사님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대 교육을 먼저 짓는 것이 실천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해서 후대 훈련센터를 먼저 짓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된 나름 특별한 사고 방식과 분별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독특하지만 특별한 분별력과 사고방식으로 제법 크게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저도 기도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무시하거나 포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분별력이 빛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후대들과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러 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품어줄 수 있는 예수의 마음과 가슴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부도 오래 같이 함께 살면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생각도 닮고 몸도 마음도 닮지만 외형도 닮는다고 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 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는 물론이고 가정 자녀 모두 살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닮는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는 소리보다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존경하는 교수님 이신데 늘 같이 대화하고 애길하면 그분은 너무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아 저분은 작은 예수님 이시다.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선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5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실패하여 추해지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나름 조금 강해지고 높아지고 부해 졌지만 늘 마음을 낮은데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넓은 가슴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많은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과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분들이 마음이 사람입니다 마음이 바로 나 입니다. 돈이 내가 아닙니다. 자리, 지위가 명예가 내가 아닙니다. 권력이 내가 분명히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납니다. 여러분 내 속에 계신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분명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절대로 좌우로 살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자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가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할 때 여러분 삶과 우리 후대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이라면 우리 아이들도 그대로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닮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칭찬 듣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잠깐만 다시 돌아 보고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분명히 나는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